

18일 강릉서 강원건축문화제 개막

도 건축사회(회장:최성두)가 개최하는 '2016년 강원건축문화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강릉시청에서 열린다.

올해는 강원건축문화상, 강연회, 랜드마크 공모전, 작품전,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어린이 건축모형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9월20일 마감한 '2016 강원건축문

화상'의 비주거 부문 대상에는 춘천 유덕건축 조덕규 대표의 '반곡별유치원 풍경만들기'가 이름을 올렸다. 또 주거 부문은 강릉 예인 최이선 대표의 '봉양재'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성두 회장은 "강원건축문화제를 통해 민·관·학계의 건축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 도내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강원건축 오늘과 미래 '한자리'

강원건축문화제 18일 강릉서 개막
건축문화상 시상식·집 그리기 대회

2016강원건축문화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강릉에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도건축사회(회장 최성두·사진)가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는 '추억의 길을 가다.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강원건축문화상, 랜드마크공모전, 회원건축사진작품전, 학생작품전,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3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 강원건축문화상 비주거부문 대상은 춘천 유덕건축 조덕규 건축사가 출



품한 '반곡별유치원'이, 주거 부문 대상은 강릉 예인 최이선 건축사가 출품한 '봉양재'가 차지했다.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최이선(강릉)씨가 전문가부문 우수상을, 가톨릭관동대 정이삭외 2인이 출품한 'UPCYCLE'이 비전문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성두 도건축사회장은 "올해 건축문화제는 기억을 주제로 추억을 더듬고 미래 건축과 연결되는 조화로운 강원도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강원도의 자연경관과 부합된 건축 디자인을 창작해 아름다운 건축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자"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건설협, 회원사·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릴레이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청렴 건설 만들기' 앞장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회원사와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건설협회는 회원사가 김영란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21일 부산·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9월29일 경기 △10월4일 대구 △10월6일 충청·대전 △10월7일 광주·전남 △10월10일 경북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오는 △10월14일 전북 △10월18일 경남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가 지난 4일 대구광역시에서 회원사 대상 김영란법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변호사가 부정청탁법 적용범위와 금지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또 임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19일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12일에도 교육을 실시했다. 임직원 대상 교육은

오는 11월16일과 12월14일 두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 준수서약서를 받았다.

건설협회는 교육과 더불어 임직

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고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한 해설집과 유관기관의 지침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는 임직원의 직무수행 관련 김영란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등에 관한 상담업무와 법령상 각종 신고사항의 처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상준기자 newspia@